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클래식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클래식 곡을 즐겨 들을까?

올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전문 라디오 방송 채널인 KBS클래식 FM은 지난 1982년부터 주기적으로 클래식 음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6년 이후 6년만에 열린 올해 설문 2021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주간 청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2002명의 청취자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 총 6619곡을 뽑았다.

1위에 오른 '황제'는 1809년 베토벤이 38세에 완성한 곡으로, 그의 피아노 협주곡 다섯 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중한 작품이다. 오스트리아 빈의 성벽 근처에 거주했던 베토벤은 나폴레옹 군의 공격으로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지하실에서 이 곡을 작곡하는 데 열중했다고 전해진다. '황제'라는 표제에 걸맞게 장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색채로 피아니즘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어 피아노 협주곡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다.

2위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세 개의 협주곡 중 가장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차지했으며, 3위는 사계절의 풍경과 변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서를 묘사한 비발디의 '사계'로 나타났다.

정열과 감미로운 속에 러시아적인 분위기가 물



베토벤



차이콥스키



비발디

KBS 클래식 FM 조사...2002명, 6619곡 중 선정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비발디 '사계' 순 '생생클래식' 특집방송...200위까지 홈페이지 게재

린 풍기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4위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콩쿠르에서 연주해 우승을 차지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5위를 차지했다.

또 21곡으로 구성된 쇼팽의 피아노곡 '녹턴'(6위),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삽입돼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7위), 바이올리니스트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8위)이 뒤를 이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9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10위) 등도 순위권에 올랐다.

이번 설문 결과 베토벤의 교향곡들과 피아노 소나타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 청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곡가는 베토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위 안에 협주곡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가 상위권에 올라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1982년 조사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2009년 조사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이 1위를 차지했다. 또 2016년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생생클래식' (낮 12시-오후 2시)은 오는 30일까지 '연말특집 - 2021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을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뽑힌 곡들을 과거의 인기곡들과 비교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에서는 순위 결과를 교향곡 및 관현악곡, 협주곡, 실내악곡, 성악곡 부분으로 나뉘어 자세히 알아보면서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작품들은 무엇인지, 예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이번에 선정된 200위까지의 순위와 장르별 순위는 방송 이후 클래식FM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021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순위

순위	곡목
1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3	비발디 '사계'
4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5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6	쇼팽 '녹턴'
7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8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9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10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소소한 일상과 만난 '몽치산수'

조근호 초대전, 2022년 1월31일까지 김넷과 갤러리

오랫동안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온 서양화가 조근호 작가는 올해 '몽치 산수'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국운미술관에서 열린 초대전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작품들은 독특한 조형성과 색감이 인상적이었다.

작업실 창밖으로 무등산을 바라보던 그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무게감, 부피감, 몽롱함을 나타내는 '몽치'였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인 무등산은 '몽치산수'의 모태이자, 소재가 됐고 자연 심상과 도시 일상이 하나로 어우러진 작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조근호 작가가 '몽치산수 II'를 주제로 다시 관람객들을 만난다. 문화공원 김넷과 갤러리 기획초대전(2022년 1월31일)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몽치산수'의 또 다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국운미술관 전시 때보다 두 배 많은 54점의 작

품을 선보이고 있는 전시에서는 몽치산수가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하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몽치산수-무등제색' '몽치산수-여름산' 연작 등 작품들은 다양한 면 분할을 통한 독특한 화면 구성이 인상적이다. 오방색을 염두에 두고 검정색을 바탕에 깔아 작품의 무게 중심을 잡은 후 초록, 주황, 노랑 등 다양한 색감들을 적절히 배치해 화사한 화면을 선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전시 인터뷰에서 "산과 도시 등 눈에 보이는 형태 등으로 몽치산수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야기, 철학, 생각의 몽치들도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겨울나무가 서 있는 풍경,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인 등 생활 속에서 걸여 올린 소재들로 작업한 다양한 주제의 '몽치산수'를 만날 수 있다.



'겨울나무'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조 작가는 지금까지 2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5회 광주신세계 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선과 색, 한국전업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맨발에 태극기... 유관순 "대한독립만세"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서대문독립공원에 동상 설치고 김행신 교수 뜻 이어 제자 김대길 등 완성...오늘 제막식

3·1 만세운동(1919년) 100주년과 유관순 열사 순국(1920년) 100주년을 맞아 추진됐던 유관순 열사 동상이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세워졌다.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와 전남대 조형연구소가 공개한 유관순 동상은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왼손은 주먹을 굳게 쥐 채 맨발로 앞을 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유 열사의 강인한 신념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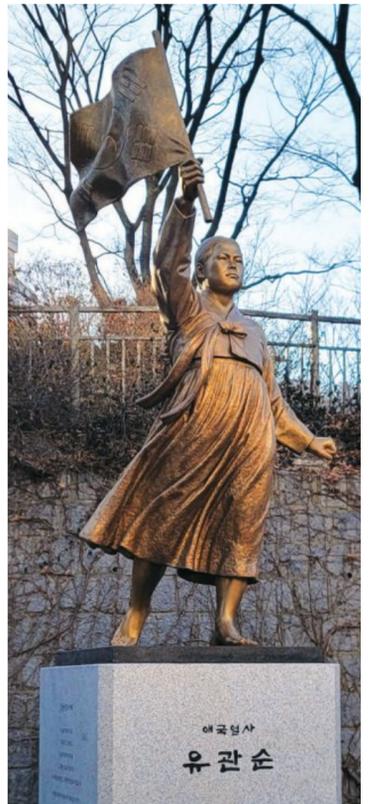
작품이 설치된 서대문독립공원은 옛 서대문형무소 자리다. 1919년 5월부터 이듬해 9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유 열사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곳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이번 유 열사 동상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의기투합해 완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원래 동상은 광주·전남 조각 1세대 고(故) 김행신(1942~2019) 전남대 명예교수가 제작해 지난해 5월20일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제자 김대길 전남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정용 교수, 박형오·윤종호 강사,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작업을 이어받아 2년 만에 완성했다.

높이 4m, 폭 1.8m의 유 열사 동상은 다부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김 교수 등은 '동양의 잔다르크'라는 컨셉을 잡고 '대한독립'이라는 굳은 의지를 담은 모습을 역동적인 동작으로 표현했다. 또 뺨속까지 스며 있는 민족의식과 함께 부모를 잃어 버린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은 맨발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는 천안 유관순기념관에 보관된 태극기 목각판을 토대로 제작했고, 저고리의 옷깃과 주름진 치마폭, 한 갈래로 묶은 머리 모양은 옛 사진을 참고했다. 고종은 복식전문가 순천대 양숙향 교수,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세워진 유관순 동상. (전남대 조형연구소 제공)

동상 제막식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서 만나는 '예술여행도시 광주'

광주관광재단, KTX 용산역에서 사진전

광주의 무등산 등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 2월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비전을 선포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광주관광재단은 지난 23일부터 KTX 용산역에서 '예술여행도시 광주' 사진전을 진행중이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용산역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 이번 사진전에는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 주상절리의 일출과 설경을 비롯, 별빛이 어우러진 정상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 총 14점을 전시중이다.

아울러 용산역사 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브랜드할 수 있는 홍보전광판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 광주관광재단 카카오톡 친구 추가와 SNS를 통한 사진전 홍보에 동참하는 참여자들에게는 기프트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사진전은 앞서 17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역에 열렸다. 문의 062-611-3654.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